한국어 집합 명사와 복수 표지 '들'

전 영 철
(서울대학교)

Jun, Youngchul. (2015). Collective Nouns in Korean and a Plural Marker *tul*. *Language Research*, 51.3, 793-814.

The terminology of 'collective nouns' is used quite freely in the study of Korean. This paper examines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of what have very often been treated as collective nouns in Korean within the framework of Plurality Theory. It reveals that the collective meanings of the examples are not the same, and argues that they should be divided into at least three types such as 'collective nouns', 'pseudo-collective nouns' and 'common nouns'. It is considered as the criterion for collective nouns that the group reading is realized as a lexical meaning but not with the help of a group marker *Ø*. So, collective nouns are the nouns which only have a group reading as a lexical meaning, and common nouns are those which get a group reading from a group marker *Ø*, and have a singular entity reading as a lexical meaning. The nouns whose lexical meaning can be a group reading or a singular entity reading are treated as pseudo-collective nouns. On the other hand, one of the debates on the plural marker *tul* is whether it is optional or not. This paper shows that the marker *tul* plays a role in identifying a collective meaning of relevant expressions. It supports the opinion that the plural marker *tul* is not optional.

Keywords: collective nouns, pseudo-collective nouns, common nouns, Plurality Theory, a group reading, a plural marker *tul*

1. 서 론

언어 표현의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를 가장 잘 대변하는 범주는 명사이다. 그리고 어떤 명사적 표현에 대응되는 전형적인 지시체(referents)는 수(number)의 관점에서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하나의 지시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단수적 표현이 사용되고, 이러한 개체가 둘 이상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수 표지를 붙인 복수적 표현이 사용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는 개체들이 지시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이 위원회가 저 위원회보다 더 효율적이야.'라는

발화에서 '위원회'의 지시체는 전형적인 단·복수의 수 개념과는 차이를 보여서 어떤 면에서는 단수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복수일 수도 있다. 여러 단수 개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지시체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명사는 보통 '집합명사'라고 불리는데, 대략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면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1)의 사례는 2013년에 국립국어원에 접수된 질문과 그에 대해 행해진 답변이고, (2)의 사례는 2010년에 모 일간지의 기자가 작성한 문건이다.

(1) 질문: '국민, 국민들', '사람, 사람들', 이런 집합명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 '국민, 국민들', '사람, 사람들'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국어에서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들'은 어근이 단수이든 복수이든 붙을 수 있습니다.
질문: '대중, 대중들'은 어떤가요?
대답: '대중, 대중들'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국어에서 '들'은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어근이 단수이든 복수이든 상관없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 따라서 허정무 축구 국가대표 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희들이 최고다"라고 했을 때와 "너희가 최고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다르다. '너희들'은 선수 개개인에게 직접 '네가 최고'라고 말한 것 같은 의미를 어느 정도 전한다. 받아들이는 선수들은 이때 더 와 닿는 기분을 느낀다. '너희'가 집단 전체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너희들'은 개개의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복수 접미사 '-들'은 이처럼 단순히 복수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말의 '-들'은 영어의 '-s/es'와 달리 더 다양하게 쓰인다. … 중략 … 다음 문장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 "국악을 신세대 감각으로 재해석해 청중을 사로잡았다." '청중들'이라고 표현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져 더 살아 있는 문장이 됐겠다. 다른 집합명사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들'은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개별성을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1)의 사례에서는 '국민', '사람', '대중' 등을 집합명사라고 부르고 있으며, (2)에서는 '너희', '청중' 등을 집합명사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들이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로 다루어질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집합명사를 이렇게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 정도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 문장들의 밑줄 친 명사들을 살펴 보자.

(3) 가. 교직원은 이 식당을, 학생은 저 식당을 이용합니다.
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3가)의 '교직원'이나 '학생'은 어떤 단수 개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어떤 학교의 교직원 집단이나 학생 집단을 가리킨다. 그리고 (3나)의 '청소년'은 일종의 종류(kind)를 대변하는 총칭적(generic) 표현으로서 청소년들의 전체 집합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사들을 집합명사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것들은 보통명사인데 집단적으로 사용될 뿐이다. 이는 한국어의 맨명사구(bare noun phrases)가 집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1] (1)의 예에서 '사람'이 집합명사로 다루어지는 것도 바로 '사람'의 이와 같은 집단적 사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보통명사로서 집단적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어 명사의 대부분이 집합명사일 것이다. 따라서 집합명사를 단순히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한편 (1)과 (2)에서는 모두 해당 명사들이 복수접미사 '들'과 결합하는 양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양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1)에서는 집합명사에 '들'이 단지 수의적으로 붙는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2)에서는 집합명사에 부착되는 '들'이 개별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를 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복수형을 논할 때 대표적인 복수 표지가 '들'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들'의 수의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위의 두 예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집합명사와 복수접미사는 제각기 복수성(plurality)이 실현되는 특정한 방식들인데, 한국어에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일정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에 대한 탐구가 한국어 집합명사의 설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한국어 집합명사에 대한 이전의 논의들로 최경봉(1998), 박철우(2010), 전영철(2013)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집합명사가 실제로는 이전의 논의들에서보다 더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그 실현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일반언어학적 논의에서 '집합명사'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한국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집합명사로 처리되던 명사들이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1) 한국어 맨명사구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명사'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본고에서 설명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하는 복수 이론(Plurality Theory)을 간략히 살펴보고, 5절에서 2-4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집합명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보다 정교한 체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집합명사'의 다양성

한국어 집합명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집합명사(collective nouns)'라는 용어가 자연언어의 기술에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Gill 1996; Mifsud 1996). Gill (1996: 66-67)에 따르면, 이 용어는 최소한 네 가지로 사용되어 왔다.

(4) 가. 'collective' = mass (물질)
나. 'collective' = set (집합[2]))
다. 'collective' = non-additive (비누적)
라. 'collective' = generic (총칭)

이 중에서 (4가/라)와 같이 '집합명사'가 '물질명사'나 '총칭명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그 쓰임새가 명백하여 특별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4나)의 '집합(set)'과 (4다)의 '비누적(non-additive)'의 경우는 이 둘에 대한 구별이 용이하지 않아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집합명사'가 집합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의 밑줄 친 명사구들은 모두 복수 해석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각각 '개별 해석(individual interpretation)'과 '집합 해석(set interpretation)'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가. Jimmy photographed <u>each of the boys</u>.
나. Jimmy photographed <u>a group of the boys</u>.

이들은 각각 'each'와 'a group'라는 표현의 도움을 받아 이런 해석을 가지는데, 이런 표현들의 도움이 없는 다음의 경우는 두 해석에 대해 중의적이 된다.

---

2)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합명사'의 '집합'과 홀로 사용되는 '집합'은 영어로 각각 'collective'와 'set'에 해당하여, 엄밀히 말하자면 이 두 '집합'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집합명사'라는 용어는 대략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할 때에도 이 두 '집합'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collective nouns'와 'set'는 보통 '집합명사'와 '집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합당한 용어가 용이하지 않아서 본고에서도 모두 '집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 이 두 '집합'은 구별되어야 한다.

(6) Jimmy photographed the boys.

즉, 여러 명의 소년들을 찍는데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찍는다는 해석과 모아서 집합적으로 찍는다는 해석이 다 가능하다. 한편 다음의 예에서도 이와 같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7) Jimmy photographed the team.

어떤 팀의 사진을 찍는데, 팀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찍는다는 해석과 팀 전체를 함께 찍는다는 해석이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6)의 'the boys'와 (7)의 'the team'은 개별 해석이나 집합 해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후자의 해석을 가질 때 (4나)의 '집합(set)'의 관점에서 이 둘은 모두 집합명사의 실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은 (4다)의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부류에 해당한다. 'the boys'는 해당 학생 하나 하나를 누적적으로 모으면 해당 학생 전체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the team'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어떤 팀이란 팀 구성원들의 단순한 누적적 합 외에도 팀 특유의 조직이나 체계가 가미되어 있다. 가령, 'the boys'와 'the team'의 외연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서로 동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후자는 그 소년들의 단순한 모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음도 포함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복수 해석을 '누적(additive)'과 '비누적(non-additive)'으로 나눌 수 있고, 후자를 집합명사로 간주하는 것이 (4다)의 입장이다.[3] 즉 'the boys'는 누적의 경우인 반면에 'the team'은 비누적의 경우로서, (4다)의 '비누적' 관점에서는 후자만이 집합명사로 다루어진다.

이와 같이 'the boys'와 'the team'은 '집합'의 관점과 '비누적' 관점 중 어느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 집합명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복수성과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복수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경우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한국어 집합명사를 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별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집합명사'라는 용어는 (4)와 같은 네 가지 외에 또 다른 방식들로도 사용되어

3) Gill (1996: 63)에 따르면, 개별 해석과 집합 해석은 꼭 명세화될 필요가 없지만, 누적 해석과 비누적 해석은 이분적 자질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명세화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6)에서 'the boys'의 누적 해석은 복수 접미사 '-s'에 의해 표시되는 반면에, (7)에서 'the team'의 비누적 해석은 어휘적 의미에서 유래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들에서는 비누적 해석이 명세화되기도 함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타갈로그 어에서는 접사 'ka- -an'에 의해 'pulo(island)'로부터 비누적 해석을 가지는 'kapuluan (archipelago)'가 유래한다.
그리고 그는 비누적 해석이 어느 면에서는 복수이자 단수라고 볼 수 있어서, 단지 복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누적 해석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왔다. 예를 들어 Quirk 외(1972: 190)에서는 집합명사를 'specific', 'unique', 'generic'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committee, herd', 'Parliament, The Arab League', 'the clergy, the intelligentsia' 등을 각각 그 예로 들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집합명사'를 의미적 관점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지 않고, 형식과 의미의 특별한 관계로 파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의미적으로는 복수의 지시를 가지지만 형식적으로는 단수인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집합명사'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어 연구에서 집합명사에 대한 견해가 일정하지 않음은 이와 관련되는 개념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한국어 집합명사의 논의에 적합한 기준을 추구하고, 그 기준에 의해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어 집합명사의 지시적 의미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3. 기존 한국어 집합명사들의 이질성

앞의 (1)이나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집합명사'는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존에 집합명사로 다루어지는 예들이 상당히 이질적인 듯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박철우(2010)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일반적으로 집합명사로 다루어진다고 제시하면서, 특히 이들이 집합명사로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더 구분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8) 가. 단체들, 팀들, 위원회들 ...
　　나. 가족들, 이웃들, 국민들, 국군들, 경찰들 ...

위 예들에 복수 표지 '들'이 붙어 있는 것은 집합명사와 '들'의 결합을 논하기 위해서인데, '들'이 붙음으로써 이러한 집합명사들의 특성이 서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8가)와 (8나)를 구분하여, 전자는 집단을 가리키지만 구성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는 반면에 후자는 집단 및 구성원들을 모두 가리킬 수 있음을 들어, 전자와 후자를 각각 '집단명사'와 '집합명사'로 세분할 것을 제안한다.

본고도 한국어 집합명사로 다루어지는 예들이 좀 더 정교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집합명사를 그저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

4) Corbett (2000: 117)은 'collective'라는 용어가 필자에 따라 너무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거의 무용지물(almost useless)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다면 (8)의 예들이나 (1)과 (2)에서 등장하는 예들이 모두 동일하게 집합명사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3)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직원', '학생', '청소년'과 같은 맨명사구가 집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어 명사의 대부분이 집합명사로 처리될 법하다. 물론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리일 것이다. 집합명사를 '집합 혹은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로 모호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다 명시적이고 정교한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8)에서 다루어진 박철우(2010)의 예들 중 몇몇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여 집합명사를 세분하는 논의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그런데 이 예들을 다룰 때 단수형과 '들'이 붙은 복수형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곧 살펴보겠지만, 동일한 예의 단수형과 복수형이 반듯이 동일한 집합명사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단수형의 예들을 살펴보자.

(9) 가. 그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동의하였습니다.
나. 가족이 찾아 왔습니다.
다. 경찰이 그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9가)의 '위원회'는 여러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지만 개별적인 구성원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에 반해, (9나, 다)의 '가족'이나 '경찰'은 그러한 집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집합의 구성원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의 아버지가 혼자 찾아 왔을 때에도 (9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한 명의 경찰관이 범인을 추격하고 있을 때에도 (9다)가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가족'이나 '경찰'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집합을 나타내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집합의 구성원을 나타내느냐의 관점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 명사들 사이의 이러한 공통점 및 차이점은 (8)에서 언급한 박철우(2010)의 관찰과 동일한 것이며, '위원회'와 '가족'/'경찰'은 박철우(2010)에서 집단명사와 집합명사로 각각 구분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명사들에 복수표지 '들'이 붙은 복수형들의 쓰임새를 살펴보자.

(10) 가. 그 안건에 대해 위원회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나. 가족들이 찾아 왔습니다.
다. 경찰들이 그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가)에서 '위원회들'은 집합인 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지만 그 구성원이 복수임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리고 (10나)의 '가족들'은 집합으로서의

가족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복수로 존재함도 나타낼 수 있다.[5] 여기까지는 (9가)와 (9나)에서 관찰한 단수형의 지시적 의미 특성이 (10가)와 (10나)의 복수형의 지시적 의미 특성에 각각 그대로 반영된다. 그런데 (10다)의 '경찰들'에서는 (9다)의 '경찰'과는 다른 지시적 의미 특성이 포착된다. (9다)의 '경찰'은 집합 및 집합의 구성원을 모두 나타내는 반면에, (10다)의 '경찰들'은 집합으로서의 경찰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경찰 구성원이 복수임을 나타낼 뿐이다. (10다)는 가령 '서울 경찰, 부산 경찰, 인천 경찰 등 여러 지방경찰청의 경찰들이 범인을 추격한다'는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저 여러 명의 경찰들에 대해 언급할 뿐이다. 그런데 '경찰들'의 이러한 지시적 의미가 박철우(2010)에서는 지적되지 못하였다. (8나)에서와 같이, 그는 '경찰들'도 '가족들'과 마찬가지의 부류로 분류하여 집합 구성원뿐만 아니라 집합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종종 집합명사라고 불리는 예들 중에서, 단수형인 '위원회', '가족', '경찰'과 복수형인 '위원회들', '가족들', '경찰들'에 나타나는 지시적 의미 특성을 관찰하였다. 정리하자면, '위원회'와 '위원회들'에는 모두 집합의 의미만 관여한다. '가족'과 '가족들'에는 모두 집합의 의미뿐만 아니라 집합 구성원의 의미도 관여한다. 그러나 '경찰'과 '경찰들'은 동질적이지 않다. '경찰'에는 집합과 집합 구성원의 의미가 둘 다 나타나지만 '경찰들'에는 집합 구성원의 의미만 관여한다. 이러한 관찰은 박철우(2010)에서보다 좀 더 세분된 것이다. 그는 소위 집합명사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 위의 관찰을 통해 그것들이 좀 더 이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집합을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최소한 세 부류가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집합을 지시하는 방식은 집합명사적 특성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집합명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에서 나타나는 이에 대한 차이는 집합 명사의 논의에 반듯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집합명사의 논의에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소위 한국어 집합명사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것보다 더 이질적이고 다양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4. 한국어 복수 표지와 복수 이론

본고는 한국어 집합명사를 논함에 있어 단수형과 복수형의 역할을 강조할 것인데, 그러한 논의에 앞서 이 절에서는 복수 표지 '들'로 대표되는 한국어 복수성(plurality)

5) 한 심사자께서 (10나)의 '가족들'이 집합으로서의 가족이 복수임을 나타내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하셨다. 그런데, 가령 가족 동반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오늘 정말 많은 가족들이 참석하셨군요'라고 말한다면, 이때의 '가족들'은 집합으로서의 가족이 복수임을 뜻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10나)의 '가족들'도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의 실현 방식을 살펴보고, 복수이론(Plurality Theory)에 입각하여 이를 적절히 설명하는 방법을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앞의 예 (1)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복수 표지 '들'은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이 복수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큰 의미 차이가 없이 '들'이 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1) 가. 공원에 나무가 많다.
나. 공원에 나무들이 많다.

나무(들)이 무성한 공원에 도착하여 둘 중 어떤 표현을 선택하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예들에 대해 '들'의 유무로 인해 의미 차이가 유발된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이남순 1982; 임홍빈 2000 등).

(12) 가. 사람이 왔다.
나. 사람들이 왔다.

(12가)는 사람이 혼자 온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온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온 경우에 각각의 사람을 부각시키지 않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에 반해, (12나)는 여러 명이 온 동일한 상황이라도 같이 온 사람들을 각각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고 구별한다.

다음의 예는 이러한 구별이 존재함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13) 가. 사람들이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
나. #사람이 각자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

'들'이 부착된 경우만이 '각자'와 공기할 수 있는데, 이는 복수의 대상을 개별화시키는 '각자'의 의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12)에서와 같이 복수의 사람을 지시할 때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들'이 부착 여부가 선택될 수 있는데, (13)에서와 같이 문장 내의 다른 표현에 의해 개별화가 요구될 때는 '들'이 부착되어야만 한다.

본고는 대략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들'의 유무가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는 두 종류의 복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우선 '들'이 부착되어 복수의 대상을 개별화시키는 경우를 '들'-복수형이라고 하고, '들'이 부착되지 않아 복수의 대상을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는 경우를 'Ø'-복수형이라고 구분하고자 한다(전영철

2007). 그리고 이러한 두 종류의 복수가 가지는 의미를 복수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Link (1983, 1984)에서 비롯된 복수이론은 복수 명사구가 가지는 복수성(plurality)을 설명하기 위한 형식의미론적인 방법론이다. 복수이론이 처음으로 도입한 가장 큰 특징은 개체 영역에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도 포함된다는 것이었다(Link 1983). 복수 개체는 합 연산(join operator) '+'에 의해 형성되는데, 가령 단수 개체로 a, b, c가 있다면 합 연산에 의해 복수 개체로 a+b, a+c, b+c, a+b+c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복수 개체를 개체 합(individual sum)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 모형의 개체 영역은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도 포함하여 {a, b, c, a+b, a+c, b+c, a+b+c}가 된다. 이와 같이 개체 영역에 복수 개체를 첨가함으로써 복수 명사와 단수 명사의 의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복수 명사는 복수 개체들(=개체 합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반면에 단수 명사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한다는 구별이 가능해졌다.

이어서 Link (1984)는 복수 명사의 해석이 보다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복수 명사의 해석이 단순히 개체 합의 해석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해석으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아래 두 예의 'David and Tina'가 해석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14) 가. David and Tina walked in the park.
나. David and Tina met in the park.

(14가)처럼 David와 Tina가 각각 해당 사건에 관여하여 'David and Tina'가 David와 Tina의 단순한 합(sum)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14나)처럼 이 두 사람이 합해져서 한 사건을 이루는 집단(group)의 해석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복수 개체인 집단은 기존의 복수 개체인 개체 합으로부터 집단 형성함수(group formation function) '↑'를 거쳐 도출된다. 즉, 위의 모형에서 단수 개체 a, b, c로부터 합 연산 '+'에 의해 복수 개체인 합 a+b, a+c, b+c, a+b+c가 도출되고, 합으로부터 집단 형성함수 '↑'에 의해 또 다른 복수 개체인 집단 ↑(a+b), ↑(a+c), ↑(b+c), ↑(a+b+c)가 도출된다. 그러면 단수 개체 및 합과 집단의 복수 개체를 모두 포함하는 이 모형의 개체 영역은 {a, b, c, a+b, a+c, b+c, a+b+c, ↑(a+b), ↑(a+c), ↑(b+c), ↑(a+b+c)}로 확대된다. 그런데 합과는 달리, 집단은 원자(atom)로서 원자들의 집합에 속하게 된다. 원자들의 집합은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집단을 포함하게 되어 더욱 풍부해지며, 단수 개체를 순수 원자(pure atoms)라 하고 집단을 비순수 원자(impure atoms)라 하여 구분한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본 복수 이론을 한국어 복수 표현의 해석에 투영시켜보자. 우리는 한국어의 두 가지 복수형인 '들'-복수형과 'Ø'-복수형을 각각 개별화된 복수성

과 비개별화된 복수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a, b, c라는 세 개체로 구성된 복수성을 가정하여, 개별화된 복수성과 비개별화된 복수성을 구분해 보자. 먼저 개별화된 복수성이란 a, b, c의 세 개체로 구성된 복수 개체에서 이 세 개체가 각각 개별화되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복수 이론에 비추어 보면, 합 연산 '+'에 의해 형성되는 개체 합 a+b+c에 해당한다. a+b+c는 a, b, c의 단순한 합이어서 a, b, c 개별적인 존재가 유지된다. 이에 반해, 비개별화된 복수성이란 a, b, c 세 개체로 하나의 복수 개체가 형성되지만 각각의 개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복수 개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집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개체 합인 a+b+c에 집단 형성함수 '↑'가 적용된 ↑(a+b+c)는 하나의 원자에 해당하므로 a, b, c는 융합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개별화된 복수성과 비개별화된 복수성이란 복수 이론의 두 가지 복수 개체인 개체 합과 집단의 개념에 각각 대응한다. 이제부터는 '들'-복수형과 'Ø'-복수형의 의미를 각각 개체 합과 집단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복수 이론의 배경을 가지고, 한국어 명사의 지시적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a, b, c가 각각 민수, 민호, 민희라는 세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면, 단수 표현인 '사람'과 두 가지의 복수 표현인 '사람-들', '사람-Ø'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이 모형에서 각기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진다.

(15) 가. ⟦사람⟧ = {a, b, c}
나. ⟦사람-들⟧ = {a+b, a+c, b+c, a+b+c}
다. ⟦사람-Ø⟧ = {↑(a+b), ↑(a+c), ↑(b+c), ↑(a+b+c)}

우선 단수 표현 '사람'은 (15가)와 같이 a, b, c 중 한 사람을 지시한다. 그리고 개별화된 복수 표현인 '사람-들'은 (15나)처럼 개체 합들 중의 하나로 실현되며, 이때 개체 합을 구성하는 개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제각기 드러낸다. 이에 반해, 비개별화된 복수 표현인 '사람-Ø'은 (15다)처럼 개체 합에서 파생된 집단을 지시하므로 개별 개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집단 형성함수 '↑'에 의해 이러한 속성이 명시적으로 표상된다.

한국어 명사의 복수성의 논의에는 이상과 같은 개체 합과 개체 집단의 개념이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집합명사는 복수성의 한 실현이므로, 한국어 집합명사의 논의도 이러한 개념들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5. 집단 표현의 세 종류: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 보통명사

이제 한국어 보통명사의 단수 표현 및 복수 표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15)와 같이 주어진다는 가정을 가지고, 소위 한국어 집합명사의 지시적 의미 특성을 '들'의 실현과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3절에서 소위 집합명사로 주로 언급되는 '위원회', '가족', '경찰'의 지시적 의미를 '들'의 실현과 함께 살펴보았다. 간략히 다시 언급하자면, '위원회'와 '위원회들'에는 모두 집합의 의미만 나타나고, '가족'과 '가족들'에는 모두 집합의 의미뿐만 아니라 집합 구성원의 의미도 나타나며, '경찰'에는 집합과 집합 구성원의 의미가 둘 다 나타나지만 '경찰들'에는 집합 구성원의 의미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본 바가 있다.

박철우(2010)에서는 '위원회'를 집단명사로, '가족' 및 '경찰'을 집합명사로 분류하였으며, 전영철(2013)에서는 '위원회'를 집단명사로, '가족'을 집합명사로, '경찰'을 보통명사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것들과 유사한 지시적 의미 특성을 가지는 명사들을 묶어 각각 '위원회'류, '가족'류, '경찰'류로 칭하고, 이들을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 보통명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본고는 아래의 논의에서 전영철(2013)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류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 세 부류가 모두 집단적 해석을 가지되 서로 다른 방식을 취함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들을 하나씩 상세히 논의해 보자.[6)]

5.1. '위원회'류: 집합명사

단수형 '위원회'와 복수형 '위원회들'의 지시적 의미 특성을 복수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자. 편의상 앞의 예를 그대로 가져온다.

(16) 가. 그 안건에 대해 위원회가 동의하였습니다.
　　나. 그 안건에 대해 위원회들이 동의하였습니다.

먼저 단수형부터 살펴보자. (16가)의 '위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집합을 나타낼 뿐이지 개별적인 구성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어떤 위원회가 a, b, c의 세 명으로 구성되었다면, '위원회'는 이 세 명으로 구성되는 집합을 나타낼 뿐이다. 그런데 이때 '이 세 명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란 단순한 세 명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의미한다. 세 명이 함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한다. 위에서 살펴본 복수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a, b, c 셋으로 구성된 개체

6) 원활한 논의를 위해, 집합명사, 보통명사, 의사집합명사의 순으로 논의한다.

합 a+b+c가 아니라 개체 집단 ↑(a+b+c)에 해당한다. 개체 합과는 달리 개체 집단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이러한 집단적 해석, 즉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라는 해석은 복수적 성격과 단수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도 볼 수 있다. '세 명'으로부터 복수적 성격이 드러나고, '원자'로부터 단수적 성격이 표출된다. 이와 같은 집단적 해석은 (4)에서 살펴본 집합명사의 비누적 해석과 매우 유사하다. Gill (1996)이 집합명사의 비누적 해석이 어느 면에서는 복수이자 단수라고 본 것과 그 맥이 통한다.

한편 이 '위원회'가 반듯이 세 명 모두를 지시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이유로 한 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두 명에 의해 위원회가 성립할 수도 있다. 구성원들 하나 하나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함께 구성하는 조직체가 바로 위원회이어서 일부 구성원이 빠지더라도 조직체로서의 위원회는 성립될 수 있다. 즉, '위원회'는 ↑(a+b+c)뿐만 아니라 ↑(a+b), ↑(a+c), ↑(b+c)를 지시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해석은 (15다)에서 살펴본 '사람-Ø'의 개체 집단적 의미와 일치한다. '〖사람-Ø〗={↑(a+b), ↑(a+c), ↑(b+c), ↑(a+b+c)}'을 통해 개체 집단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집합을 지시할 때, 그 집합은 복수이론의 개체 집단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복수적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원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개체들을 모두 총망라적으로 지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체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수형인 '위원회-Ø'가 아니라 단수형인 '위원회'가 '사람-Ø'와 마찬가지로 개체 집단적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다. 집단 표지 'Ø'가 영 형태이어서 '위원회-Ø'와 '위원회'가 음성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형태적으로는 구별되는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개체 집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사람'과 '사람-Ø'을 구별한 이유는 '사람'과 같은 보통명사는 복수 표지 '들'이 없는 형태가 단수 개체와 집단의 해석을 모두 가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집단 표지 'Ø'를 설정하여 '사람'과 '사람-Ø'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원회'는 항상 집단의 의미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필요하지 않다. '위원회'의 유일한 본연의 의미가 집단적 의미이므로 영 형태 'Ø'의 도움 없이 어휘 내적으로 집단을 지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원회'의 이러한 특성이 바로 '사람'과 같은 보통명사와 구별하여 '위원회'를 집합명사로 불러온 이유일 것이다.

다음으로 복수형인 (16나)의 '위원회들'의 지시적 의미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위원회들'은 여러 위원회들이 개별적으로 부각되는 해석을 받는다. 가령,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로 위원회 A, 위원회 B, 위원회 C가 있을 때, (16나)는 이 위원회들

이 각각 동의하였음을 나타낸다. 복수이론에 따르면 이것은 개체 합 A+B+C의 해석에 해당한다. 앞에서 우리는 개체 합의 복수성이 '들'에 의해 표상됨을 살펴보았는데, 이 '위원회들'의 '들'도 개체 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각각의 위원회는 그 자체가 또한 집단의 해석을 가지는 복수 개체이다. 즉 '위원회들'은 개체 집단인 위원회가 합의 방식으로 존재함을 나타낸다. '위원회들'에는 집단과 합이라는 두 종류의 복수성이 동시에 실현되고 있다. '위원회들'을 '위원회-들'로 분석하여 '위원회'는 개체 집단의 해석을 가지며 이에 대해 '들'로부터 개체 합의 의미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5나)와 같이 보통명사 '사람'의 복수형인 '사람-들'이 단수 개체인 사람이 합의 방식으로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과 구별된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류는 단수형 '위원회'가 개체 집단의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 복수 표지 '들'이 붙은 복수형 '위원회들'은 개체 집단에 대한 합의 의미를 표상한다. 이를 복수 이론적 방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7) 가. 〖위원회〗 = {↑(a+b), ↑(a+c), ↑(b+c), ↑(a+b+c)} (단, a, b, c는 단수 개체임.)
나. 〖위원회들〗 = {A+B, A+C, B+C, A+B+C} (단, A, B, C는 개체 집단임.)

이 유형에서는 집단의 해석을 위해 집단 표지 'Ø'가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15)에서 제시된 '사람'과 같은 보통명사와 분명히 구별되는 지시적 의미 특성이다. 이와 같이 집단 표지 '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휘적으로 집단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5.2. '경찰'류: 보통명사

두 번째 부류로 '경찰'과 '경찰들'의 쓰임새를 살펴보자.

(18) 가. 경찰이 그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나. 경찰들이 그 범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단수형 '경찰'과 복수형 '경찰들'이 집합 지시와 관련하여 차이가 남을 살펴보았다. '경찰'은 한 명의 경찰관을 지시하기도 하고, 경찰관들의 집합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들'은 '경찰'이 지시하는 단수 개체인 경찰관이 복수임을 나타낼 뿐이지 '경찰'에 의해 지시되는 집합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과 '경찰들'의 실현 양상은 (15)의 '사람'과 '사람들'에서

살펴본 것과 다르지 않다. 우선 '사람'은 '경찰'과 동일하게 한 사람을 지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나 '경찰들'은 모두 사람들의 집합이나 경찰들의 집합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단지 단수 개체인 사람이나 경찰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찰'/'경찰들'을 '사람'/'사람들'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은 단수 해석과 개체 집단 해석을 가지며, 이들이 각각 단수형인 '경찰'과 'Ø'-복수형인 '경찰-Ø'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고, '경찰들'은 단수 개체에 대한 합 해석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경찰'을 집합명사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보통명사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박철우(2010) 등에서 이것을 집합명사로 다루던 방식과 차이가 난다. '경찰'이 단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집단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경찰'을 보통명사로 처리하여 '경찰'의 집단적 의미가 '경찰-Ø'에 의해 실현된다는 설명은, '위원회'를 집합명사로 보면서 이것의 집단적 의미가 '위원회-Ø'가 아니라 '위원회' 그 자체의 어휘적 속성으로부터 실현된다는 앞에서의 설명과 잘 부합된다. 음성적 실현으로 보면 '경찰-Ø'나 '위원회'가 모두 복수 표지 '들'이 붙지 않은 동일한 형식으로 실현되면서 집단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집단적 의미들이 실현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집단 표지 'Ø'의 도움을 받아서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표지 없이 어휘적 속성으로 실현되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후자만을 집합명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집단적 해석이 실현되는 두 가지의 방식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 방식은 명사의 부류를 분류함에 있어서 개념적으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어떤 명사들을 집합명사로 분류할 때 그러한 명사들이 고유하게 가지는 속성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집단 표지 'Ø'와 같은 외적 도움을 받아 얻는 집단적 의미를 그 명사의 의미로 간주하여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기에, '경찰-Ø'의 집단적 의미를 기반으로 '경찰'을 집합명사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보통명사가 가지는 집단의 의미와 집합명사가 가지는 집단의 의미 자체에도 차이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가령 '사람-Ø'이 가지는 집단의 의미는 그 집합을 형성하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묶음 정도의 의미여서, '사람이 왔다'와 같은 예에서 '사람'이 집단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에 사람들의 어떤 한 무리를 지시하는 정도로 이해된다. 이에 반하여 '위원회'가 가지는 집단의 의미는 위원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위원들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조직의 의미가 첨가된다.[7] 그래서 '위원회'는 특정한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7) '위원회'의 이러한 의미는 (4)에서 살펴본 집합명사의 비누적 해석에 상응한다.

조직을 지시하여 일정한 제한적 외연이 부여되는 반면에 '사람'이나 '경찰'과 같은 보통명사에 의해 지시되는 집단은 그와 같은 외연이 형성되지 않는 듯하다. 이러한 차이가 다음의 예에서 드러난다.

(19) 가. 민호와 민수는 한 위원회이다.
나. #민호와 민수는 한 사람이다.[8)]
다. #민호와 민수는 한 경찰이다.

'위원회'는 특정한 구성원으로 제한된 외연을 가지는 집합을 지시하므로 그 집합이 하나의 특정한 부류를 형성하여 (19가)와 같은 표현이 허용된다. 민호와 민수 두 사람이 동일한 부류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사람'이나 '경찰'은 그러한 특정한 외연을 가지는 집합을 지시하지 못하여 특정한 부류를 형성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 결과 (19나, 다)가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다음으로 복수형인 '경찰들'을 논의해 보자. '경찰들'은 단수 개체들의 복수 의미만을 가질 뿐이지 집단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는 '경찰'의 집단적 의미가 어휘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찰-Ø'에 의해 실현된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측될 수 있다. 이 사실에 따르면 '경찰들'이 집단의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찰-Ø-들'과 같이 집단 표지 'Ø'가 포함되는 구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Ø-들'은 하나의 명사에 'Ø'와 '들'이라는 두 가지 복수 표지가 부착된 형식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찰들'이 집단의 복수를 나타내지 못함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에 반해 만약 '경찰'의 집단적 의미가 어휘적인 것이라면 '경찰들'이 집단의 복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들'은 '경찰-들'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집단적 의미를 가진다면 이 의미에 복수 표지 '들'이 작용하여 '경찰들'도 집단의 복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경찰'의 집단적 의미가 어휘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집단 표지 'Ø'의 도움을 받아 실현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경찰'류가 '사람'과 같은 보통명사와 동일한 지시적 의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포착될 수 있다.

(20) 가. ⟦ 경찰 ⟧ = {a, b, c}
나. ⟦ 경찰-Ø ⟧ = {↑(a+b), ↑(a+c), ↑(b+c), ↑(a+b+c)}
다. ⟦ 경찰-들 ⟧ = {a+b, a+c, b+c, a+b+c}

---

8) '#' 표시는 민호와 민수가 동일한 종류의 사람 부류에 속한다는 의미가 결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18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찰'이 단수 개체적 해석뿐만 아니라 집단의 해석도 가지지만, 실제로는 이 집단의 해석이 어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 표지 'Ø'로부터 유래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집단적 의미도 '위원회'류와 같은 집합명사의 집단적 의미와 차이가 남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종종 집합명사로 다루어져 온 '경찰'류의 명사들은 보통명사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3. '가족'류: 의사집합명사

다음으로 '가족'과 '가족들'의 경우를 '위원회'류와 '경찰'류를 살펴본 방식으로 다시 관찰해보자.

(21) 가. 가족이 찾아 왔습니다.
나. 가족들이 찾아 왔습니다.

앞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단수형인 (21가)의 '가족'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을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지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복수형인 (21나)의 '가족들'도 단수 개체인 가족 구성원의 복수를 지시하기도 하고 집합인 가족이 복수임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 및 '가족들'에 모두 단수 개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집합의 의미가 나타나서 위에서 살펴본 '위원회'류나 '경찰'류보다 더 다양한 의미가 실현된다.

먼저 단수형 '가족'부터 재론해보면, '가족'이 단수 개체적 의미와 개체 집단적 의미를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보통명사인 '경찰'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므로, 박철우(2010)과 같이 '가족'과 '경찰'을 동일한 부류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가족'의 개체 집단적 해석은 '경찰'의 개체 집단적 해석과 차이가 난다. (19)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나 '경찰'과 같은 보통명사의 집단적 해석은 구성원들의 한 묶음을 나타내는 정도인데 반해, '가족'은 그 구성원들의 단순한 묶음 이상으로 특정한 관계, 즉 혈연관계에 의해 형성된 조직체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22) 가. 민호와 민수는 한 가족이다.
나. #민호와 민수는 한 사람이다.
다. #민호와 민수는 한 경찰이다.

(19나, 다)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람'과 '경찰'은 특정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나타내지 못하는 까닭에 (22나, 다)는 부적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가족'은

혈연관계를 가지는 특정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22가)와 같은 표현이 무난하게 수용된다. 이와 같이 '가족'이 보통명사인 '경찰'과 같이 단수 개체적 의미와 개체 집단적 의미를 모두 가지는 듯하지만, 후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서로 구별되는 점이 있다.

앞에서 '위원회'는 특정한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조직이어서 특정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집단을 지시함을 살펴보았는데, '가족'의 집단적 해석도 '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집합명사인 '위원회'류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집단적 해석이 '가족-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표지 'Ø'의 도움 없이 그 자체의 어휘적 의미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은 집합명사적인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이 단수 개체적 의미와 개체 집단적 의미를 모두 가진다는 점에서 보통명사인 '경찰'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수 개체적 의미만을 공유할 뿐이다. '가족'의 집단적 의미는 '경찰'과 같은 보통명사의 집단적 의미가 아니라 '위원회'와 같은 집합명사의 집단적 의미에 해당한다. 즉, '가족'은 어휘적 의미로 단수 개체적 의미와 개체 집단적 의미를 가지는데, 전자는 보통명사적인 특성인 반면에 후자는 집합명사적인 특성이다. '가족'은 보통명사의 특성과 집합명사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단수형 '가족'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위에서 살펴본 복수형 '가족들'의 의미 실현과도 잘 부합한다. '가족들'은 단수 개체인 가족 구성원의 복수를 지시하기도 하고,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복수로 존재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족들'은 '가족-들'로 분석되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 구성원 및 그 집단을 중의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과 잘 연결된다. 특히 집단 표지 'Ø'의 도움이 없이 어휘적으로 '가족'이 개체 집단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가족-들'로 분석되는 '가족들'이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복수로 존재함 나타낸다고 무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가족'류의 지시적 의미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복수 이론적 방식으로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

(23) 가. 〖가족〗= {a, b, c} 또는 {↑(a+b), ↑(a+c), ↑(b+c), ↑(a+b+c)}
나. 〖가족-들〗= {a+b, a+c, b+c, a+b+c} 또는 {A+B, A+C, B+C, A+B+C}

이는 '가족'류가 한편으로는 집합명사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명사적임을 잘 보여준다. 단수형 '가족'이 단수 개체적 의미({a, b, c})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는

복수형 '가족들'이 단수 개체에 대한 합의 의미({a+b, a+c, b+c, a+b+c})를 가지는 부분은 '경찰'류의 보통명사적 특성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수형 '가족'이 개체 집단적 의미({↑(a+b), ↑(a+c), ↑(b+c), ↑(a+b+c)})를 가지고, 그것의 복수형 '가족들'이 집단에 대한 합의 의미({A+B, A+C, B+C, A+B+C})를 가지는 부분은 '위원회'류의 집합명사적 특성에 해당한다. '가족'류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보통명사와 집합명사의 중간적 위치에 존재하는 부류로서 '의사집합명사'라고 구분하고자 한다.

5.4. 정리

이상을 통해, 집합명사로 종종 언급되는 '위원회', '가족', '경찰'의 지시적 의미 특성을 복수표지 '들'의 실현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복수 이론의 집단 및 합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집단 표지 'Ø'의 도움이 없이 어휘적으로 집단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들을 집합명사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이 셋의 집합명사로서의 지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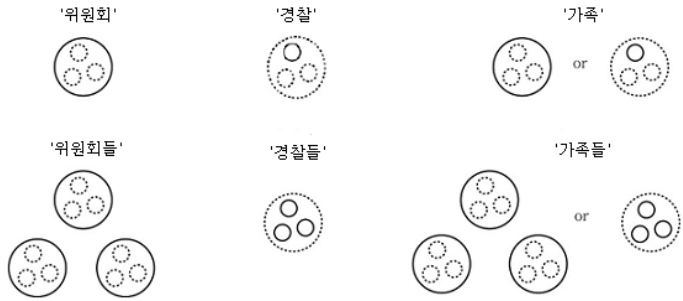
첫째, '위원회'류는 단수형 '위원회'가 개체 집단의 의미를 가지며, 여기에 복수 표지 '들'이 붙은 복수형 '위원회들'은 개체 집단에 대한 합의 의미를 표상한다. 둘째, '경찰'류는 단수형 '경찰'이 단수 개체적 해석만을 가지며, '들'-복수형인 '경찰들'은 단수 개체의 합 해석을 가진다. '경찰'이 집단의 해석을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Ø'-복수형인 '경찰-Ø'의 집단 표지 'Ø'에서 유래한 것이지 단수형인 '경찰'의 어휘적 산물이 아니다. 셋째, '가족'류는 단수형 '가족'이 개체 집단적 의미와 단수 개체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데, 이에 대응하여 복수형 '가족들'도 집단에 대한 합의 의미와 단수 개체에 대한 합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위원회'류가 온전히 집합명사로 처리될 수 있는 반면에 '경찰'류는 집합명사가 아니라 '사람' 등과 같은 보통명사로 처리됨이 타당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류는 '위원회'류의 집합명사적 특성과 '경찰'류의 보통명사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으며, 다른 예들을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가. 집합명사: '위원회', '조합', '단체', '팀', '함대', ...
나. 의사집합명사: '가족', '국민', '형제', '조폭', ...
다. 보통명사: '경찰', '국군', '소년', '학생', '사람', ...

그리고 이상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보고자 한다. 큰 원과 작은 원이 각각 집단적 개체와 단수 개체를 나타낸다. 실선은 표상의 대상임을 나타내며, 점선은

표상의 대상이 아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큰 원이 실선으로 실현되는 것은 집단적 개체를 지시하는 집합명사적 특성을 반영하며, 실선으로 실현되는 작은 원들은 각각 하나의 단수 개체를 지시하는 보통명사의 특성을 반영한다.

(25)



위의 도식에서 '위원회'/'위원회들', '경찰'/'경찰들', '가족'/'가족들'이 표상하고 있는 대상들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류는 단수형 '위원회'와 복수형 '위원회들'에서 모두 실선의 큰 원만이 실현되고 있어서 집단적 개체만이 관여하는 전형적인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경찰'류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에서 모두 큰 원이 실선으로 실현되지 않아서 집합명사적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대신 작은 원만이 실선으로 실현되고 있어서 이것이 보통명사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류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에 모두 큰 원 및 작은 원이 실선으로 실현되고 있어서 집합명사의 특성 및 보통명사의 특성이 함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위원회'류, '가족'류, '경찰'류를 각각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 보통명사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박철우(2010)이나 전영철(2013)과 차이가 난다. 박철우(2010)에서는 '위원회'를 집단명사로, '가족' 및 '경찰'을 집합명사로 분류하였으며, 전영철(2013)에서는 '위원회'를 집단명사로, '가족'을 집합명사로, '경찰'을 보통명사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소위 한국어 집합명사가 좀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이들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집합명사의 집단성을 논의할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고는 집합명사의 집단성이 어휘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지 집단 표지 'Ø'를 통해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집단성의 실현 정도가 이 세 부류에서 각기 다름을 논의하였고, 그 실현 정도를 부류의 명칭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집단성의 실현 정도를 '위원회'류, '가족'류, '경찰'류의 순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을 집합명사, 의사집합명사, 보통명사로 명명하였다.

6. 맺음말

(1), (2)와 같은 예처럼 '집합명사'라는 용어는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용어는 아주 다양하고 모호하게 사용되어온 까닭에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별 언어의 특성에 따라 이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게 되는 요인들도 있어서 자연언어 전체에 대해 '집합명사'를 정의하기란 더욱 어려워지는 듯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한국어에서 소위 집합명사로 종종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들인 '위원회', '가족', '경찰'의 지시적 의미 특성을 복수 이론의 집단(group) 및 합(sum)의 개념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의 집합적(collective) 의미가 서로 다르게 실현됨을 확인하고, 기존에 집합명사로 여겨지던 예들이 최소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이 모두 적당한 상황에서 집단의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한국어 맨명사구(bare NPs)의 일반적인 특징일 뿐이지 집합명사이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았다. 본고는 집단의 해석이 집단 표지 '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집합명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어휘적 의미로 집단의 해석만이 실현되는 '위원회'류를 '집합명사'로 보았고, 어휘적으로는 단수 개체의 해석이 나타나고 집단 표지 'Ø'에 의해 집단의 해석이 실현되는 '경찰'류를 '보통명사'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어휘적 의미로 집단의 해석과 단수 개체의 해석을 모두 가지는 '가족'류를 '의사집합명사'로 명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이전에 종종 집합명사로 간주되던 많은 예들을 보통명사나 의사집합명사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집합명사와 보통명사의 집단적 해석을 엄격하게 구분한 결과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대중', '청중', '군중'과 같은 예들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들은 또 다른 집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으로 이들을 논의에 포함시킨다면 더 세분된 집합명사의 부류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국어 복수 접미사 '들'에 대한 논란 중의 하나는 이것이 수의적이냐는 것이다.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들'은 집합적 의미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명사가 집합적 의미를 가질 때 이 의미가 집단 표지 '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휘적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만 이에 대해 '들'의 복수성이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들'이 수의적이지 않다는 견해에 대한 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참 고 문 헌

강범모. (2014).『양화와 복수의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박철우. (2010). "'들'-표지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한국어 의미학』31, 51-75.
이남순. (1982). "단수와 복수",『국어학』11, 117-141.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과 사건성",『애산학보』24, 3-50.
전영철. (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언어학』49, 339-361.
전영철. (2013).『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최경봉. (1998).『국어명사의 의미연구』, 서울: 태학사.
Corbett, Greville. (2000). *Number*. Cambridge: Cambridge U. Press.
Gil, David. (1996). Maltese 'collective nouns': A typological perspective'. *Rivista di Linguistica* 8.1, 53-87.
Link, Godehard.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 and Mass Terms: A Lattice Theoretic Approach. In R. Bä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302-323.
Link, Godehard. (1984). Hydras: On the Logic of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with Multiple.
Heads. In F. Landman and F. Veldman eds., *Varieties of Formal Semantics*. Dordrecht: Foris, 245-257.
Mifsud, Manwel. (1996). The collective in Maltese. *Rivista di Linguistica* 8.1, 29-51.
Quirk, Randolph.,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전영철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cjun@snu.ac.kr

접수일자 : 2015. 10. 27
수정본 접수 : 2015. 12. 4
게재결정 : 2015. 12. 8